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민28:1~2)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어제 우리가 민수가 28장과 29장 전체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28장 1~2절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직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하신 내용은 땅 분배에 관한 것이었고, 복지를 정복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로서 제사를 말씀 하십니다. 타이밍으로만 보자면 군사작전을 말씀하셔야 현실적으로 합당할 것 같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라는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택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제사가 중요해서 말씀을 하신 사실에서부터, 바로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말을 연결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중요함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내용적으로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중요하지만 제사가 중요하다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완전히 무관하지도 않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이 혼란과 오류를 굳이 꼬집어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 의식에 포함된 여러 가지 형식적 요소들이 신약의 예배 속에 들어오면서 예배의 모습이 거짓으로 정당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꼬집어서 이야기해보자는 것인데 신앙생활의 오류를 극복하자는 것이지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수지침을 놓을 때 정확한 자리에 놓지 못하고 수지침 세트를 선물해 주신 권사님이 '가운데 손가락 밑에서 둘째 마디에 백 개의 수지침을 놓으세요. 그러다보면 하나 맞겠지요.'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구약 속에 있었던 사건과 사물들을 신약 속으로 직접 연결 짓는 습성이 생겨버렸고,

이 습성 때문에 현재의 신앙생활이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류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인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의 예를 들어보면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 않고, 성전이 예배당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 안식일, 성전 등이 지니는 참 의미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아지는데 마치 나팔꽃의 모양을 상상하면 됩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팔꽃처럼 벌어져있는데, 그 꽃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한 지점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것들이 다 모아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의 예표적 성격이 온전히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붙들고 있는 것은 구약의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전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고 하늘에서만 내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추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십자가 사건과 연결 될 수 없다면,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구약 성경의 존재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이지 않고, 십자가 사건을 우회해서 신약의 예배와 직접 연결 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여지지 않고, 십자가 사건을 우회해서 신약 성경의 예배당으로 직접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을 할 때에도 구약에 나오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구약의 성전 건축에 힘썼던 모든 노력과 마음을 신약으로 올바르게 가지고 온다면 예수님 십자가 생활화에 다 쏟아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갖고 있던 의미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제사를 계속 드린 것에서는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영혼은 빠져나가고 시체만 남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시체를 부둥켜안고 계속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의 존재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도 성전을 중

요시하는 것은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를 붙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집착을 하니 주후 70년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성전을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맙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제사를 명하신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형식적 요소들을 예배로 가져와서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아무런 직접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서 예배가 나타난 것이지, 구약의 제사가 직접 연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이나 안식일에 대한 모든 언급이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주일과 직접 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도 일단 주님의 십자가로 모아져서 완성이 된 것이지 주일의 형태로 바꾸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도대체 신약 교회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민들을 출애굽 시키신 후에 주신 것이 많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회막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주시고 안식일 규정을 주시고 많은 제사를 주셨습니다. 신약 교회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남은 사도들과 추종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하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사건입니다. 제사도 주어지지 않고 안식일도 주어지지 않고 성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제사와 안식일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들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교회에서는 정해진 예배 형식이나 제사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대신에 예배당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들판에서도 형성이 되었고 공원에서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당은 신약의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의 유일한 소유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교의학적으로 교회의 3요소를 말씀과 세례와 성찬으로 꼽습니다. 말씀과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뜻하는 세례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세 가지 변형된 형태입니다. 십자가 하나를 세 가지로 표현하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추구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신약 교회의 예배가 무엇이고 행사들에 대해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주어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같은 예배당, 안식일 같은 주일, 제사 같은 예배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을 보면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남은 사도들과 추종자들이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이 땅에서 기쁠 거리와 만족할 거리를 찾고 자기 삶에 평강을 가져올 근거를 찾아 헤매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고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을 통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때에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설교가 주어집니다. '최초의 설교'라는 의미는 참 교회다운 설교의 원형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각국의 방언을 하는 가운데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현상의 의미를 밝혀주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라는 최초의 현장이 왜 생겼느냐에 대해 설명하며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달리 아는 것이 없고 주어진 것이 없고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행2:23~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째 요소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37~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사건은 시간적으로 이미 과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다시 언급함으로서 눈앞에 지금의 사건으로 다시 제시합니다. 지금의 사건이 된 십자가 사건 앞에서 교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과 땅에서의 반응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오늘의 사건으로 전개되는 것이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데 두 번째 요소입니다.
예배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주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예배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것입니다.
마지막 요소는 마음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성령의 본질적 역사는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신 것이고, 진짜로 일어난 일은 유무상통이 일어나고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무상통'은 돈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줍니다. '돈'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의 만족의 이유, 기쁨의 이유, 평강의 근거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서 하늘나라가 현실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적용되고 돈을 보니 돈은 평강과 만족과 기쁨의 근거가 아니므로 유무상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로서 십자가를 재현시키는 말씀이 있고, 재현되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늘이 현실이 되다보니 이 땅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예배인데 이것은 예배당이 없어도 됩니다.

행3:1~3절에 "제 구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새 /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이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라고 합니다. 그 때에 한 말이 3: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합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하는 일 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이 많아서 그것들로 할 수 있는 일을 자꾸만 하면 탈교회화 되기 시작하고 비즈니스가 되고 장사가 되고 맙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참 교회 노선에서 이탈하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에서 십자가가 현재의 사건으로 말씀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입니다. 요즘 우리는 '설교가 감동적이고 재밌고 설교를 듣고 웃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에 완전히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해석하여 십자가를 드러내야 하는데 이것이 설교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쓰는 언어의 세계로 해석해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를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로 구약이 가리키는 십자가, 신약이 회상하는 십자가를 해석해내서 십자가를 오늘의 사건으로 펼쳐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여도 궁극적으

로는 십자가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잘 할 필요도 없고 감동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되면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감동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웃기거나 울리거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재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예배의 완성입니다. 이 '예배의 완성'은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교인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공부하면서 십자가를 생활화로 완성이 되느냐 미완으로 그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안식일의 직접 통로가 되는데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에서 출발해서 삶을 십자가 생활화로 완성시키고 예배를 완성시키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면 삶에 지배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날 돌아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다시 주일의 의미가 생겨나므로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에 오면 다른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재현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이 땅에 매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하늘로 올라간 마음에 성령이 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궁극적인 기업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로 적용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장사꾼들이 손님 앞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투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바자회를 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헌물로 헌금을 드리면 헌금에 대해서도 십자가로 사는 교회라이프에 직접적으로 필요가 없는 모든 돈들은 다 구제와 선교사님에게 보내며 다 써버리면 됩니다. 왜 몇 백억 몇 천억 짜리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돈 자랑을 하는 것인데 돈 자랑의 궁극적인 뿌리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을 읽어 갈 때의 우리의 관점이 제사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되는 이유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드린 화려한 예배당도 있고 온갖 형식적 요소가 가미된 장엄한 예배도 있습니다. 또 예배의 강조점을 달리하며 변형된 찬양과 경배가 있고 온갖 미디어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왔다'는 것에서 정당화를 하는데 그것이 문제이므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구약에서부터 말하는 제사의 의미를 이룬 것이고, 성전의 의미를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당에 모여서 온갖 찬양과 온갖 미디어를 동원을 하는데 교인들의 마음은 세상에 묶여 있는 그대로이고, 말씀 속

에서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므로 한 주간 살아오며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묶인 교인들의 마음에 희망을 줍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원하는 세상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마음상태에서 갖게 되는 세상에 대한 바람을 강화시키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성수주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예배는 월요일에도 가능하고 목요일에도 가능합니다. 성수주일을 해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모여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한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나의 사건으로 재현하고, 듣는 사람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정기적인 시스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다보면 자꾸만 세상에 붙잡히기 때문에 실천적 측면에서 주일이 중요한 것이지, 안식일의 대행으로 성수주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때려죽였던 의미에서의 성수주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협박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좋다고 하는 형식이 다 이루어져도 십자가가 재현되는 말씀이 없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사건이 없고,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없다면 성령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묶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생활화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놓쳤기 때문에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데도 엉망인줄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할 일은 지금 직장에 나간 김 집사가 직장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고, 직장에서 승진이라는 것 앞에서 죽고 있느냐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환자가 있다면 낫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내 몸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몸이 아픈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관심하고 있느냐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관심하기 위해서는 아픈 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몸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십자가 생활화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목숨을 걸고 교인들을 독수리눈으로 지켜보면서 인도하고 지도해야 하는데, 세상에 사로잡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느냐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를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도이고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건 아니지요.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십자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전하는 자는 십자가를 전하고 받는 자도 십자가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적용되면 내가 얻을 것은 다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손이 되셔서 나를 장갑 삼아 당신의 뜻

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가정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그 교회를 하나님이 깨뜨려버리십니다. 조직이 강화되기 위해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일곱 집사를 세웠을 때에, 이 집사들을 구제를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합니다. 이 원론적인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교회를 서서히 고쳐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고사합니다. 사라지고 말아요.
저기 터키 지방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얼마나 굉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까? 회교가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럽에도 회교가 점점 더 퍼져가고 있고 다 죽어버리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지 않고, 재현되는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임이 없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감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한다면 중단하세요. 지었다면 회개하세요. 그 예배당이 여러분 교인들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이것 하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고 여기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하나 주셨는데 이 우주 전체를 돈으로 환산한 값보다도 더 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무한하심이 우리들에게는 아직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